

문화기술에 관한 콘텐츠의 상상력

문화와 생활을 아우르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랍기만 하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또 사라지고 있다. 빠른 속도는 재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연일 발달하는 첨단 기술을 적절하게 아우르면서도 이를 천천히 일상에 도입해 나가는 사용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 덕분에 이번 호를 만드는 내내 편집부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 치열했던 회의가 계속되었다.

문화기술이 발을 딛고 있는 장소는 현재지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미래라고들 말한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매력이지만, 각자 매력을 느끼는 지점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문화기술이 담아낸 콘텐츠의 그림은 모두 제각각이기 마련이고, 콘텐츠가 그리는 문화기술의 모습은 언제나 상상이라는 영역에 한 발을 디디고 서 있게 된다. 지금 홀로그램 기술이 부분적으로 구현되고 있고, 또 블록체인 서비스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기술이 만드는 세상이 지금의 그것과 완전히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발달하는 기술은 패러다임 전체를 일순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써내는 글과 예측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조금 먼 미래 사이를 오가게 된다. 실현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그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독특한 풍경과 만나는 게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어떤 미래를 말하고 있든, 문화기술로 이루어낸 새로운 콘텐츠가 기반을 둔 상상을 그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 다뤄진 다양한 검증을 거치고 있는 문화기술에서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기술과 테크놀로지 자체보다는 이를 다루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보다 주목하게 된다. 사람의 상상력이 더해진 콘텐츠가 결국 그 문화기술을 현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상상력은 방향 없이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불편을 개선해 나가는 지향점을 내부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눈앞에 놓인 최신 기술을 무작정 장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중까지를 고려하는 큰 그림 아래에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①